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The Potential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김억중 / 편집디렉터,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Eok-Jung

1.

대전 중앙로변의 이력을 살펴보면 우리네 삶의 질곡만큼이나 파란만장하다. 불과 40여년 사이에 격변해 있는 모습과 옛 자취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 때국물을 닦기도 전에 껍데기 옷만 신식으로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좌충우돌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로변 풍경은 아직도 중, 소규모 3~6층이 대중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필지병합을 통한 거대규모의 매스들이 포진해오고 있는 형국으로 이른 바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바람직한 변화란 무엇인가? 무엇이 그러한 변화의 원인과 배경인가? 건물은 도시의 변화를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60여년의 도시건축 경험은 신시가지에 어떠한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채워지고 있는 건물들은 과연 변화를 의식하면서 지어지고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광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른 말인가? 이번 대전 지역건축탐방의 주제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던 것은 뭔가 신선한 논리로 새로운 전략이나 대안을 드러내기보다는 위와 같은 수많은 의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곧 우리 도시건축의 미래를 진솔하게 생각해 보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우리 도시의 변화는 분명 개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전체의 흐름과 징후는 하나의 공통된 기제 하에서 파악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도시건축물은 허울 좋은 파사드일 뿐 그 배후에는 돈이라는 메카니즘이 풀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네 도시건축은 “돈아래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하게” 모여져 있는 모습을 뿔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빛은 광택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 듯하다. 광택은 문명의 상징이요 진보의 기표이다. 돈이 지나간 자리는 예외없이 광택이 나기 마련이지만 역으

로 광택을 났으로써 자기를 증식시키는 유전법칙을 지닌 것 또한 돈의 메카니즘이 아니던가?

임양빈 교수는 “대전 도시발전의 전망과 대책”에서 둔산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건축 과제를 문화적 차원으로 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어 기존의 도시발전을 길들여온 천박한 경제원리의 지배 풍토를 비판해 주고 있다.

3.

반면 광택은 때국물이나 흔적을 지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거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광택은 시간 속에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광택을 내야하는 숙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대전도 어느 대도시 못지 않게 광택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괴와 신축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 고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역사의 적층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시키거나 미모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지워져 왔다. 도시건축물은 그 시대의 삶의 증거물로 남지도 못하며,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까운 과거 - 이를테면 30여년 전 -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묘한 피해의식 - “우리의 근대건축은 배고플 때 한 것들이라 모두 사이비요 어설플 것이다”라는 인상과 맞물려 있다 - 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파괴하고 신축하는 일에는 일말의 위우침조차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정동 교수의 “대전의 근대, 현대 건축”에서 시도한 리스트 작업은 너무도 소중하기만 하다.

돈은 ‘역사’도 서슴없이 밀어내고 갈아치운다. 지금 우리는 우리 도시의 광택내기를 우리 세대에 마치 끝내기로 할 것처럼 -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조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가? -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돈은 후손을 생각하게 하는 한치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다.

더욱 기증스러운 것은 돈이 문화라는 편리한 옷을 걸쳐 입고 설쳐댈 때이다. 기억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런 사고방식이라고 수치심을 자극하면서 속삭여댄다. 나아가서는 “지금 이대회가 최고”라고 설득하면서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도록 세뇌한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건축도 이제는 패션이라고 선언할 만큼 문화적으로 성숙하게 됐다고 자긍심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또한 신축·파괴의 순환고리가 마치 시대의 요청인 것처럼 그 당위성을 확보하려 든다. 그리하여 껍데기만의 변화를 부추겨, 거리엔 ‘인테리어’ 풍의 캐주얼한 파사드가 세련됨을 뽐내면서 호들갑스럽게 늘어가고 있다.

도시의 변화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미지 자체가 늘 부유하고 안정되지 못하다면 우리의 장소감각은 어떻게

적용해야만 하는가? 게다가 우리 도시는 전체가 곧 건축현장처럼 뒤범벅되어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며, 파괴와 신축을 반복하며 발생하는 생돈을 그만 축낼 수는 없는 것일까?

고성희 선생의 “도시의 일상”에 대한 글은 그러한 변화조차 따스한 시선으로 어우르고 있어, 도시민의 삶에 필요한 건축적 장치에 주목함으로써 그 또한 잠재력의 단면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4.

우리 도시는 지난 시대에 가꿔왔던 추억과 상상력의 질료를 완전히 거둬 버리고 있는 중이다. 한 시절 소중한 줄 모른 채 값 잘 쳐준다고 골동품 팔아 없애던 시대의 의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없애려는 내용만 바뀌어 급기야 집과 거리를 마구 파헤치고 있는 셈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추억의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체불명의 외계인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지도에 그려진 이름만의 고향은 있되 기억의 실체가 증발해 버리고 광택만이 섬뜩한 고향, 진짜 실향민은 우리네 도시인인 것이다. 실향민 찾기에 열을 올리는 순간 더 많은 진짜(돌아가 봐야 별볼일 없는) 실향민이 태어나는 아이러니...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래도 덜 우둔한 편인지도 모르겠다.

한상수 교수의 “대전시의 풍속과 역사”에 대한 개관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생생하게 복원하는 작업으로 지금의 상황이 미래의 소중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5.

우리는 과연 우리 모두가 얼마큼 실향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걸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 건축가들은 건축이 “추억의 질료”를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있는 것일까? 자신의 건축이 어찌면 “도시 역사의 질료”로 남아있게 될 끔찍한 부담감을 느끼기라도 하는 것인가?

도시건축이 필연적으로 “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인 조건을 얼마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실향을 해결하는 열쇠로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이겨낼 만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도시 형태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프로그램이 바뀌면 파괴의 숙명을 안게 되는 건물이 아니라 고유의 이미지를 커다랗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를 모색해야만 한다. 언제까지나 임시방편의 건축행위로 인해 파괴와 신축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가?

우리는 도시건축 속에 ‘변하는 것’과 ‘남은 것’

사이의 관계가 이뤄내는 역사와 광택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미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는 도시와 건축을 하나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다시 우리의 주거와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 함께 더불어 신명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공공의 가치요 덕목이라 할 때 그에 걸맞은 좋은 제도(Software)를 아무리 잘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도시의 공간구조(Hardware)안에서 약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염불일 뿐이다.

참다운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주거의 질은 법전에 보장되는 권리만으로는 무의미하다. 그 권리는 거리에서 쉽게 체험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집안의 창문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집밖의 정경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유려한 말만의 역사로는 미흡하다. Victor Hugo가 역사는 글로도 쓰여지지만 건축으로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을 지으며 도시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유병우 소장은 다소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전의 현대건축”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선정해 평가하였으며, 송용호 교수는 대전 도시건축연구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 지역 30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뇌와 분투를 여실히 기록해 주었다.